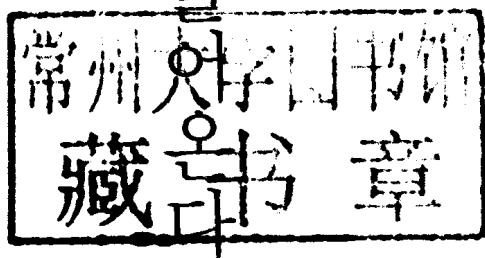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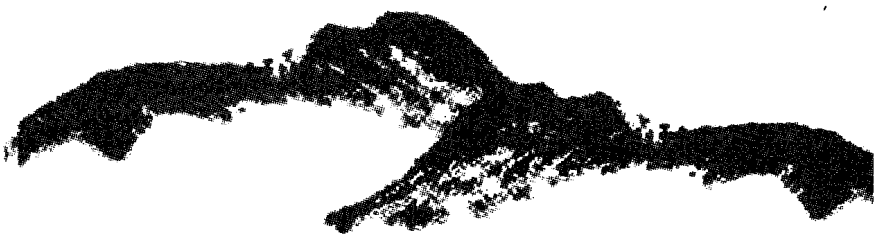
# 해가 흐름을 물어온다

려순희  
저

# 해가 흠을 물



려순희  
저



홍릉  
조성민  
출판사

## 图书在版编目(CIP)数据

太阳,托起大地:朝鲜文 / 吕顺姬著. — 哈尔滨: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 2010. 8  
ISBN 978-7-5389-1674-4

I. ①太… II. ①吕… III. ①诗歌—作品集—中国—当代—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 IV. ①I227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2010)第165117号

书 名/ 太阳,托起大地  
著 者/ 吕顺姬  
责任编辑/ 徐 燕  
责任校对/ 宋英爱  
封面设计/ 李光吉  
出版发行/ 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  
发行电话/ 0451-57364224  
电子信箱/ hcxmz@126.com  
印 刷/ 牡丹江新闻传媒印务有限公司  
开 本/ 880 mm×1230 mm 1/32  
印 张/ 4.25  
字 数/ 100千字  
版 次/ 2010年10月第1版  
印 次/ 2010年10月第1次印刷  
书 号/ ISBN 978-7-5389-1674-4(民文)  
定 价/ 10.00元

## 시집 《해가 흠을 물어온다》를 내면서

2009년에 동시집 《해님의 꼬리》를 펴낸후 이번에 성인시집 《해가 흠을 물어온다》를 모아보니 또 꿈을 꾸는것만 같습니다.

지난 수십년 동안 참 많이 아프게 살았습니다. 어릴적 작가가 되려던 꿈은 그냥 꿈일뿐이었습니다. 너무 오랜 세월 포기하지 않고 집착한 덕분에 저에게도 시집을 출간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것 같습니다. 문화대혁명의 세레속에서 문법조차 제대로 익히지 못한 저에게 시쓰기는 너무 높은 산이었습니다. 나름대로 모지름을 쓰며 노력하였지만 저의 시쓰기는 어두운 터널속에서 제자리걸음만 하였습니다.

다행히 최룡관시인님을 운명처럼 만났습니다. 일년 남짓한 동안 최선생님의 사심없는 가르침을 받으며 변형을 알게 되었고 이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시쓰기로 긴 터널속에서 빠져나와보니 높다란 산기슭이었습니다. 산기슭에 이르렀으니 시에 입문했다고 해도 되겠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도 안개속에서 헤매고있는 기분입니다. 이제 남은것은 시적사유를 더 개방하고 언어를 갈고 다듬으면서 선배님들의 뒤를 따라 부지런히 산으

로 오르는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면 언젠가는 저도 예술가치가 있는 시를 쓸수 있으리라고 믿어마지않습니다.

저의 시의 계몽선생님이신 최룡관선생님과 저한테 시를 쓸수 있는 용기를 주신 한국의 공석하교수님, 윤홍상시인님께 진심으로 머리숙여 사의를 표합니다.

하늘나라에서 지켜보시는 부모님께 큰절을 올립니다. 늘 곁에서 묵묵히 응원해주신 남편과 아들 등 가족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집이 출판되기까지 심혈을 아끼지 않으신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편집선생님들께도 진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합니다.

저자 려순희  
2010년 5월 9일

## 차 례

시집 《해가 흙을 물어온다》를 내면서/1

제1부 순례자의 고달픈 여행/1

오솔길/3

무제/4

책을 읽으며/5

종소리(1)/6

종소리(2)/7

나의 서재에서/8

소고기매대에서/9

진달래/10

자목련/11

시/12

등산/13

물고기가게에서/14

정/15

초경/16

열쇠찾기/17

가계부/18

4월/19

봄바람/20

성묘/21

동태/22

|                         |  |
|-------------------------|--|
| 제2부 산봉우리가 앉은채로 들썩거리다/23 |  |
| 지진/25                   |  |
| 화투놀이/26                 |  |
| 세월/27                   |  |
| 가야금/28                  |  |
| 상모돌리기/29                |  |
| 유리문/30                  |  |
| 태양능/31                  |  |
| 포도주/32                  |  |
| 바람과의 여행/33              |  |
| 고독의 노래/34               |  |
| 언어 사냥(2)/35             |  |
| 가을/36                   |  |
| 타자/37                   |  |
| 시인 /38                  |  |
| 시월의 꽃/39                |  |
| 피아노/40                  |  |
| 광고/41                   |  |
| 도마도 파는 곱사등 할머니/42       |  |
| 제3부 와인들의 반란/43          |  |
| 레스토랑에서/45               |  |
| 나의 작은 별/47              |  |
| 아버지/48                  |  |
| 언어사냥/49                 |  |
| 시간/50                   |  |
| 널뛰기 /52                 |  |
| 첫눈(1)/53                |  |
| 첫눈(2)/54                |  |

|                    |  |
|--------------------|--|
| 아버지의 눈물/55         |  |
| 바람의 일기(1)/56       |  |
| 바람의 일기(2)/57       |  |
| 봄날아침/58            |  |
| 세탁기/59             |  |
| 노란 실국화/60          |  |
| 꽃(1)/61            |  |
| 어울림/62             |  |
| 희열/63              |  |
| 허수아비/64            |  |
| 나무초리/65            |  |
| 현 독/66             |  |
| 제4부 풀잎들의 무언의 함성/67 |  |
| 함박눈이 내리던 날/69      |  |
| 신수리공/70            |  |
| 첫돌생일잔치에서/71        |  |
| 녀인(1)/72           |  |
| 리별/73              |  |
| 앓은뱅이 집들의 반란/74     |  |
| 황홀한 밤/75           |  |
| 수자의 함정/76          |  |
| 일광산/77             |  |
| 꽃(2)/78            |  |
| 돌/79               |  |
| 종기/80              |  |
| 시여/81              |  |
| 서랍속에서/82           |  |
| 거리의 간판들/83         |  |
| 런닝머신/84            |  |

|                        |
|------------------------|
| 옷장속에서/85               |
| 젖은 날/86                |
| 채찍/87                  |
| 봄/88                   |
| 제5부 머리속에서 길어져가는 새꼬리/89 |
| 골목길/91                 |
| 새/92                   |
| 지문/93                  |
| 모서리/94                 |
| 풍경/95                  |
| 찜질방에서/96               |
| 눈 내리기 직전/97            |
| 봄길/98                  |
| 미로속에서/99               |
| 스케트경기장에서(1)/100        |
| 스케트경기장에서(2)/101        |
| 나의 하루/102              |
| 노을/103                 |
| 둥근달/104                |
| 련실/105                 |
| 봄/106                  |
| 박넝쿨/107                |
| 백조 /108                |
| 종이학/109                |
| 보행거리/110               |
| 아파트 중후군/111            |
| 사진찍기로부터 상생에로의 도약/112   |

## 제 1 부

### 순례자의 고달픈 여행

내가 읽는 책속에서  
빨간 파란 노란 까만 하얀 샘플이  
퐁퐁 솟아나옵니다



## 오솔길

현금줄 현금줄들이 저만의 소리로  
자기의 음을 신나게 슬프게 연주하네요

비파줄에서는 실속없는  
구름의 약속이 안개로 걸려있어  
기린의 목들이 밤마다 망상의 꽃을 피우네요

가야금줄에서는  
둥둥둥 북소리와 함께 비운의 녀인  
바우덕이가 고공 줄타기를 하며 깊은 골짜기를 넘네요

앵금줄에서는  
날개 꺾인 새들이 세월의 응어리를 풀고  
창천을 날아예며 천지의 고요에 파도를 일으키네요

나는 줄사이의 화음을 찾아  
지휘봉으로 천길벼랑을 가른 베토벤을 찾아가네요.

## 무제

평생 시간에게  
아금아금 값히고 뜯기우는줄 몰랐어요

불이 발가우리한 사과원을 지나왔고  
푸름이 무성한 여름날 숲속도 지나왔어요

아침이면 방실거리는 웃음으로  
창문을 두드려 깨워주던 해살이 고마왔고  
저녁이면 가롱대는 풀벌레소리로  
깊은 잠이 들게 하던 달빛이 고마왔어요

바보같이 그것들이 한통속이 되어서  
나의 삶과 뼈를 값아먹는줄도 모르구요

락엽들이 하나 둘  
무한한 자유를 찾아 어디론가 날아가네요  
언젠가는 나도 그렇게 눈물 그렁이며 떠나가겠죠

저만치서 미련한  
령구차가 꼬떡꼬떡 졸고있네요.

## 책을 읽으며

내가 읽는 책속에서  
빨간 파란 노란 까만 하얀 샘물이  
퐁퐁 솟아나옵니다

빨간 샘물속에서는  
노을빛 아침을 기다리던 새들이  
진달래꽃잎과련속 입맞춤을 합니다

파란 샘물속에선  
텔레비존이 눈을 깜박입니다  
빛에 허기진 눈알들이  
창밖에서 해살오리 하나 좇습니다

노란 샘물속에선  
칠색 조명이 엇바뀌는 무대우에서  
콩나물이 피아노를 치고  
앵무새가 아리랑을 부릅니다

...

샘물이 무수한 수채화를 펼칩니다.

## 종소리(1)

무거운 침묵이 드리운 종루  
고요속에 잠자는 종추

나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풍차를 돌리는 바람에  
종추가 절주있게 흔들리며  
우렁찬 종소리가  
나의 푸른 혈관속에 굵이친다

나의 심장이 박차를 가하며  
얼굴에 빼알간 노을꽃을 피운다  
바람 부는 날  
나는 종소리를 업고 달린다.

## 종소리(2)

순례자들의  
고달픈 려행이 시작된다

하늘에 흑장미무리들이 떠돈다  
바람이 마른 기침으로  
흑장미 가시독을 뽑아낸다

순례는 무인도에서 홀로 하는 체류

고독과 동품하는 밤  
로승이 독경소리로 죽음을 깨달은  
새들의 울음소리를 잠재운다.

## 나의 서재에서

수억년의 잠에서  
공룡이 깨어나며 천지가 뒤바뀐다

금강산 기암절벽에서  
나는 구룡폭포의 비취알이 되어  
천길벼랑을 뛰어내린다

료동의 개벌에서  
나는 작은 꼬막이 되어  
황홀한 노을 한조각 물고있다

돈황막고굴의 벽화속에서  
나는 북대불 몸체의  
푸른 이끼로 돌아나 순례를 한다

시간은 잠을 자고  
나는 나를 잃어버린다.